

Craig Keener 박사, Matthew, 강의 10, 마태복음 9-10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10회기 마태복음 8-9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에 관해 읽습니다. 우리는 이전 수업에서 이러한 언급된 기적들 중 첫 번째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마가복음의 아주 초기 부분인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나병환자의 치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8장 5절부터 13절까지에서 백부장에 대해 읽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따라서 마태는 다양한 출처에서 자료를 얻었지만 이것은 로마인의 예외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별로 조회수가 높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아마도 인종적으로 아시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유대인과 시리아인은 가이사랴와 같은 유대 지역에서 특별히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야기를 기록하는 요점은 우리가 마태복음 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외가 이방인 선교 전체를 예시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의 백인 부목사였습니다. 그곳에서 제 아주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인 교회의 동료 부목사가 미국의 특정 지역 출신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의 인종적 편견.

그리고 그는 백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백인들에 대해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깐만요, 로버트, 저는 백인이예요"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자 로버트는 "오, 크레이그, 미안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의미하지 않았다. 내 말은, 당신은 나에게 형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백부장에 관한 누가복음 7장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주목한 것은 백부장은 예외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외, 루크가 기록한 이유는 이것이 유일한 예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예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변할 수 있고, 당신이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이 로마인의 예외의 요점은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종을 대신하여 자신을 낮추십니다. 글쎄요, 아마도 마태복음의 청중은 백부장보다는 하인에게 더 공감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 백부장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실제로 코셔를 지킬 수 없었고, 로마 군대에서 유대인 신앙을 실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특히 이 글이 70년 이후에 기록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노예가 된다면 그 종과 더 많은 동일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백부장의 가족 전체가 그랬을 수도 있다.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20년 복무 기간 동안 결혼을 해서는 안 되었지만 하인을 둘 수는 있었습니다. 평균 노예 비용은 최고 군단원의 급여, 즉 연간 급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백부장 기본급은 기본급 기준으로 일반 군인의 급여의 약 15배였습니다. 그리고 선임 백부장은 그 4배를 벌었습니다. 일반 군인 기본급의 60배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으로서는 그는 하인을 둘 수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는 그의 종을 대신하여 자신을 낮추고 와서 예수님께 오시기를 요청했고 예수님은 믿음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누가는 이야기의 다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리스어에서는 ἰ라는 단어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는 이미 동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어에서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같까? 자, 그것이 질문이라면, 그것은 1527년에 예수께서 처음에 가나안 여인을 날려버린 사건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는 믿음에 장애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글쎄요,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회당 비용을 지불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집에 들어가실 건가요? 그 사람의 반응은 이방인으로서 자신의 열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멀리서도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의 무한한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는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권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로마제국의 권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은 그에게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그가 말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권위 아래 있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도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사물이 당신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올 것입니다. 음,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치유를 구할 때 누구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가까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대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믿음이 내 백성의 믿음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때때로 진실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적게 인식하거나 가장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앞으로 올 더 많은 이방인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그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동쪽과 서쪽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그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식탁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의 많은 자녀들, 곧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 많은 사람이 울며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리라. 일부 고대 문헌에서는 이를 가는 것이 분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Sibylline Oracles와 같은 다른 텍스트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고뇌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는 것은 아마도 저주를 애도하는 것일 것이다. 이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 우리는 치료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웁니다. 그는 공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치료자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신혼부부가 시집에서 함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시댁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요즘 더 인기 있는 시어머니 농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댁 식구들은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린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어린 경우가 많았으며 아이들이 어머니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피터와 그의 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결혼 초기에 피터의 부모와 함께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들은 베드로의 장모를 데려왔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실제로 초기 낙서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집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며, 이는 그 집이 복음서에 나오는 가버나움에서 많은 다른 사건이 일어났던 회당과 매우 가까운 올바른 집임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그들을 돌보거나, 그들의 음식이나 다른 모든 것을 보살펴 주는 것은 단지 그녀의 감사와 환대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왔고 예수님은 16절에서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마가는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우리는 17절에서 그분이 단순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를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관습적인 퇴마 기술은 의식과 함께 마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다양한 마법 공식을 사용하여 영혼을 쫓아내거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냄새나는 뿌리를 사용하여 악마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토빗서에는 냄새가 나옵니다. 그리고 Antiquities 8의 Josephus는 마술적인 종류의 반지와 솔로몬의 이름 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의 대부분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과 유사합니다. 아마도 그것들은 그들과 가장 가까운 유사점일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영이 나오면, 다윗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이 정말로 영이라면 악령이 나오는데, 다시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솔로몬에 대하여 말하였으니 그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 뛰어나서 다윗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단지 유대 전통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성서의 다른 곳에서 알고 있는 예수의 이름은 영을 쫓아내는 이름입니다. 치유는 예수님의 사명의 일부였습니다. 8.17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글을 쓰면서 구약성서의 헬라어 역본인 칠십인역에 나오는 표현 방식을 우회하고 히브리어를 직접 번역하여 영적인 형식을 제공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육체적 치유. 이제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8절부터 9절까지의 문맥을 보면 그것이 죄로부터의 치유에 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 적어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역시 이사야 53장의 문맥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은 이사야서의 또 다른 치유 구절의 문맥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이사야 6장의 치유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는 이사야 29장, 이사야 32장, 특히 이사야 35장과 같이 육체적인 치유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구절들도 있습니다. , 예수님은 나중에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내용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종의 사명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이사야서의 더 넓은 범위의 본문을 끌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들은 종종 영적인 치유, 즉 죄로부터의 치유에 대해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35장에서처럼 장애자들이 기쁨으로 뛰놀게 될 다가오는 시대를 미리 맛보는 것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충만한 회복이 있으며,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미리 맛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로 인해 고통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예를 제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이사야서 53장을 그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로마서 15 :1-3에서는 이사야를 그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는 마태복음의 문맥과 잘 들어맞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부정함을 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나병환자를 만지셨습니다. 그는 혈루증이 있는 여인이 자신에게 닿은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회당장의 딸의 시체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함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은 예수님에게 다른 비용을 치르게 합니다.

내 말은, 예수님은 부자나 권력자들과 어울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존경받는 바리새인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는 확실히 성전 설립을 통제했던 사두개인들의 호의를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기가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외부인들에게로 가십니다. 우리는 9장에서 그분이 죄인에게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 군대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 그를 지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권력자들의 환심을 사거나 그런 식으로 왕국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자들에게 사역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행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게 그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방식이며, 아버지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결국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루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4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에게 왔습니다.

그녀는 와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정중한 중동식 표현입니다.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인, 이것은 여자에게 말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일반적으로 어머니에게 말하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Gunay 부인,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일단 내가 이 표적을 행하기 시작하면 나는 나의 시간, 곧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에 응답하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는 이사야의 말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대가를 치르셨으므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죄의 용서이든, 우리 몸의 치유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어떤 축복이든, 예수님은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사야 35장은 육체적 회복과 치유의 육체적 회복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해의 물고기가 소생하고, 사막에 백합이 피어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야는 계속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관점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부서지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멸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멸망의 문이 넓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을 포함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셔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은사가 무엇이든, 우리는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유는 미래 세계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머리 둘 곳이 없으며 자신을 따르는 것이 가족과 사회적 의무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글쎄, 이 특별한 맥락에서, 그 사람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따르겠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 배에 타도 될까요? 나는 호수 건너편에서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궁극적으로 단순히 그분과 함께 배에서 어울리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가 기본적인 안전조차 희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는 4장 13절에서 알 수 있듯이 가버나움에 본거지를

두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를 신뢰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환대에 힘입어 많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노숙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해사본에 나오는 의의 교사는 자신이 동지 밖으로 쫓겨난 새처럼 광야로 쫓겨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약의 급진적인 선지자들에 대해 읽습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새들의 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과부와 그 자녀를 통해 기적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숙자들은 무시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들은 지위가 낮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기꺼이 그 대가를 계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신성한 지혜와 비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거부되고 방황해야 하며 사람들 가운데 자리를 갖지 못한다는 일부 본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시편에 나오는 새와 같은 의로운 고난의 언어를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1, 내가 여호와께 피하노라. 그럼 어떻게 나에게 도전할 수 있나요?
새처럼 당신의 산으로 도망가세요. 시 124:7,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우리가 벗어났도다

또한 여우와 자칼은 폐허가 된 장소에 출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 여우나 새들도 있을 곳이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가끔 자리가 없는 것,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의 이미지로 사용되는 그들조차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가장 기본적인 안전을 잃더라도 기꺼이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놔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그게 누구에게나 가혹하게 들리나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른 의무보다 우선시하십니다. 그 정도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돌아가셨나요? 누군가가 죽으면 즉시 애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실 때쯤에는 애도하는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두 명의 애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애도하는 사람들을 예리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이것은 적절한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화권, 흔히 서구 문화권에서는 슬픔을 참으며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노력하다가 1년이 지나면 어떻게든 신경쇠약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문화권에서는 슬픔을 표현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들은 슬픔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문화도 그랬다. 그들은 7일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7일 동안 앉아 있는 것을 좌식 시바(sitting shiva)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음식을 가져왔고 그들은 7일 동안 애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1년 동안 애도의 기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글쎄, 그들은 가족이 슬퍼하고 슬픔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전문 애도자들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관습에 따르면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다면 이 사람은 먼저 랍비에게 말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는 집에 가서 장례식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집 밖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건

제가 학생들에게 평가를 받고 애도하는 사진이에요. 어쨌든 사람이 죽으면 즉시 시체를 들것이나 상여 같은 곳에 눕혀 무덤으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행렬을 본 사람은 모두 뒤에서 합류했습니다. 랍비들은 심지어 장례 행렬이나 결혼식 행렬을 위해 수업을 내보냈습니다. 과부나 고인의 어머니가 상여 앞으로 걸어가곤 했습니다.

후기 랍비들에 따르면 이브는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앞으로 걸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나중에 나온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그들 중 일부는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과부나 어머니는 상여 앞으로 걸어가곤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나훔의 과부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과부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관에 손을 대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장례 행렬 뒤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행렬에 합류할 생각이 없다. 그는 앞쪽에서 와서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고 나서 그녀의 아들을 키운다. 글썄요, 이 아들은 장례 행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는 랍비와 이야기를 나누면 안 됩니다. 큰 아들은 무덤의 대기실에 시체를 남겨두곤 했습니다. 고인에게 아들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요한의 경우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을 위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 가족은 시바(shiva)에 앉아 7일 동안 앉아서 애도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구 문화에서 장례식처럼 가족들이 아무것도 처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돌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따로 만났습니다. 온 손님들과 함께 누군가 거기 머물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죠? 왜 그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음, 제안된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이것이 일부 샘어에서 발견되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먼저 아버지를 물어야 하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아직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글쎄요, 저는 떠나기 전에 계속 남아서 마지막 효도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Kenneth Bailey가 제안한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 아들이 2차 장례를 언급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이미 아버지를 한 번 장사 지냈지만 그 시체는 1년 동안 부패되도록 방치되었습니다. 일부 랍비들은 이러한 분해가 죄를 속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랍비, 나방이 그의 귀 뒤에서 먹기 시작하자 그의 과부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죄를 속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1년이 지나면 아들은 다시 돌아와 뼈를 상자, 즉 납골당에 모아 벽에 있는 구멍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것이 2차 장례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아들이 말하는 장례식이 바로 이것이어서 최대 1년의 연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쎄요, 비록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요구를 긴급한 것으로 제시하지 않으시더라도, 그가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1차 장사를 말하든 2차 장사를 하든 이것이 아들의 가장 큰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토빗서에는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에 관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토빗은 명예롭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로 여겨졌는데, 죽은 사람을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토빗의 아들 토비아스는 토빗 이야기에서 그의 마지막 효도는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 매장이든 2차 매장이든 이것은 큰 책임이었습니다. 많은 현자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장 큰 계명으로 여겼으며, 우리는 랍비들뿐만 아니라 요세푸스에게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계명의 가장 큰 표현을 부모를 묻어 두었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너무 부끄러워서 평생 마을에서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보다 먼저 그러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랍비들은 때때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 우리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존경받아야 하지만,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장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긴급하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긴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누가는 실제로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1년 정도 늦어졌는지 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발갈기 시작하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리나요? 예수님은 여기서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이야기를 암시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광야에 살면서 새 입에서 음식을 먹은 급진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급진적인 부름을 받았습니다.

즉, 에스겔은 아내가 죽었을 때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결코 결혼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호세아는 아마도 자신이 결혼하는 것을 결코 허락받지 않았더라면 하고 바랐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3년 동안 벌거벗은 채 맨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내는 그와 결혼하지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그녀는 여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런 일에 익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는 새의 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존은 벌레를 먹었습니다. 에스겔은 사람의 똥 위에 익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소똥을 요리해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음, 그것은 유용한 연료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급진적인 선지자인 엘리야를 따르기 위해 엘리사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소 12 겨리 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밭도 많고 종도 많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를 태우는 것은 희생이자 식사이다. 그는 단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을 뿐이고, 이는 자신을 위한 작은 작별 파티를 열려는 뜻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허락합니다.

예수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헌신되지 않은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었고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고대 문학의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것을 발견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그 사람을 따르고 싶다면 극복해야 할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처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들은 특히 급진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급진적인 사람들 중 한 분이십니다.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분은 헌신된 제자를 원하십니다. 단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추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글쎄요, 그가 다른 제자에게 한 말은 요점을 전달하는 급진적인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더욱 예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가 될 사람에 대한 권위를 요구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다음 세 가지 기적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추가 행동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보여 주십니다.

우리는 8장 23-27절에서 자연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읽습니다. 갈릴리 호수, 여기서는 바다라고 부릅니다. 복음서에서는 종종 바다라고 부르지만, 일반적인 바다 정의로는 바다가 아닙니다. 정말 호수다, 임네 .

제 생각엔 누가복음 5장에서 누가가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가끔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왜 바다라고 불리는가? 그런데 현지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다시 이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에 대한 초기 갈릴리의 기억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600피트 아래에 있고 그 주위에는 계곡으로 둘러싸인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 그 산들 사이를 통과하여 갑자기 폭풍을 일으키고 바다에 돌풍을 일으킬 것입니다. 갈릴리 어선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꽤 작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몇 명의 남자만을 붙잡았습니다. 임차인은 폭풍과 같은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보트를 반환하는 데 동의 했습니다 .

해안 근처에 있으면 해안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호수 한가운데에 있다면 이 작은 보트 중 하나를 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고대에 바다에서 폭풍을 다룬 영웅이나 신에 관한 다른 기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먼 과거에 살았던 신이나 영웅에 관한 것이거나 폭풍이 멈춘 이야기였습니다.

폭풍을 멈추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폭풍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누군가가 폭풍을 멈추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들은 수세기 전의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상당히 현대적인 설명입니다.

한 세대 안에 있습니다. 마가는 수 세기 전의 전설이 아니라 한 세대 안에 이를 보고합니다(마가 4장). 예수님은 26절에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꾸짖으셨습니다.

2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평안은 환난 중에 자는 것이 믿음의 표라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그것을 누군가가 살아야 할 방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평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모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겁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이미 6장에서 소유물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을 돌보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책망하신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일부 주석가들이 지적했듯이 아마도 그는 제자들이 스스로 그렇게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 말은, 그들은 한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 폭풍을 멈추지 않았나요? 가능합니다. 적어도 그가 말하는 것은 당신이 나에 대해 이미 충분히 봤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배가 나와 함께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정체성의 표현을 봅니다. 27절,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훨씬 더 일찍, 몇 세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나중에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기록은 항상 신성한 행위에 관한 것이며, 이것들은 방금 일어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은 폭풍에게 잔잔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후 요나가 바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요나서의 언어를 반영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대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나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지친 잠에서도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사역을 해왔고 지금은 배 안에 있습니다. 그는 활발한 사역으로 인해 배 외에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다음 기적 이야기는 828년부터 834년까지 귀신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무덤은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악마와 마법의 특별한 소굴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악마의 활동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다라에는 치유의 안식처가 있었습니다. 글쎄, Matthew는 Mark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는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를 원했다면 마술처럼 해석되었을 수 있는 몇 가지 모호성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지정된 위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는 게라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태는 가다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글쎄, 어느 것이 맞나요? 마가의 거라 사(Gerasa)는 예수 시대에 더욱 강력했으며 지역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약 3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Matthew's Gadara는 약 6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 아마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로마 행정의 관점에서 유대와 갈릴리를 포함하는 시리아 지역의 청중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시리아는 꽤 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더 잘 알려진 도시로 그 지역의 이름을 지었고, 마태는 더 가까운 도시로 그 지역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이 옳고 한 사람이 그르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주변을 일반적으로 정확히 찾아내려는 노력의 문제일 뿐입니다. 둘 다 주로 이방인인 데카폴리스인 지역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유대-로마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할 때 까지 데가볼리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 여성들은 유대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살을 원하지 않는 이방인 남편인 남편들은 아내가 음모를 누설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아내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그런 다음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충성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공동체를 학살했으며, 요세푸스에 따르면 어쨌든 그들이 동료 유대인들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학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돼지들에게서 알 수 있듯이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마태가 마가의 귀신들린 자들을 두 배로 늘렸고, 나중에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20장에서 다시 마가의 눈먼 자들을 두 배로 늘렸다는 것입니다. 글썄, 그 사람은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마크가 한 사람을 조명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전기에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크는 한 인물에만 집중해서 만들어내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문학적으로 더 잘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작가들은 항상 그런 일을 했으며, 복음서에는 이에 대한 다른 예가 있습니다. Michael Licona는 그의 연구에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매튜가 다른 이야기를 생략했기 때문에 보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마가복음 1장에서 귀신들린 자의 이야기를 생략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마가복음 8장에서 맹인의 치유를 생략했다는 것을 압니다. 마태가 예수께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저는 단지 예를 들 뿐이고, 그것은 단지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일 뿐입니다. 이는 가능한 접근 방식 중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둘 중 하나는 고대 문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귀신들조차도 그들의 심판자가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오직 초자연적인 존재들, 즉 초인적인 존재들만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정합니다. 결국, 악마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자연 위에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초자연적입니다.

그들은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마가 더 강력한 것 앞에서 자비를 구하는 다른 고대 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마는 군인들이 자주 그랬던 것처럼 같은 지역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했고 다른 사람들은 종종 같은 지역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사실 현대에도 이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귀신들은 분명히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는 방법이었던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귀신들이 소리 지르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마가의 표현을 덧붙이자면, 때 이전에는 왕국이 이미 있었고 아직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재산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데빌드 햄에 대한 농담을 했습니다. 특정 언어에서만 작동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엑소시즘은 대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보통은 영혼이 나올 때 이렇게 큰 장면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고대의 청중들은 귀신들린 돼지들이 익사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악마들도 익사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즉, 우리는 악마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몇 랍비들은 죽은 귀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문학에서 우리가 읽는 내용은 악마가 묶이거나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경우, 때로는 물 아래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악마의 영향을 받은 이 돼지들이 절벽 위로 달려가면 그 사람보다 더 감염되기 쉽습니다.

그들은 절벽을 넘어 물 속으로 돌진합니다. 악귀들은 최소한 활동을 멈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재산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보다 재산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관점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술사였습니다. 이봐요,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파괴했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그를 악의적인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보내셔서, 보십시오,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마술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행위였습니다. 다음 기적 이야기에서 우리는 9장 1절부터 8절까지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 배웁니다. 예수님은 간구하는 사람들의 믿음,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하는 사람들의 믿음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간구자들이 이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지붕을 헐고 지붕을 통해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마태는 그것을 생략했지만 분명히 그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믿음의 행위로 나아갔습니다. 글썄요,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간구하는 자들의 믿음에 감동을 받으셨다는 교훈을 배웁니다.

여기에서는 지붕을 헐었다는 언급은 없지만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간구하는 자에게는 치유보다 용서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내 말은, 치유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용서입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동정심의 행위였지만 나중에 이야기할 왕국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죄가 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용서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질병은 개인적인 죄와 관련이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병환자는 중상죄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서술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종교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옳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수동태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속죄도 하지 않으십니다. 바쳐지는 희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용서가 이루어졌을 때 유대인들은 희생 제물, 즉 속죄를 위해 떠나야 한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 의 권위. 그러나 심지어 메시아에게도 그러한 권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신성모독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제, 신성 모독이라는 용어가 기술적으로, 적어도 후기 랍비들에 의해 사용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어 블라스페메 오(blasphemeo)는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떤 종류의 사람을 욕하거나 반대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연합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희생 제물이 드러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용서하거나 용서를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의 권위, 그분의 통치, 그분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치유하시는 그분의 권위는 용서하시는 그분의 권위를 뒷받침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의 결과에 맞서 싸우기 위해 예수님을 다시 보내셨다면, 타락 그 자체에 대해 오메르를 부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28장에서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예수의 기적, 즉 그의 반대자들이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에 대한 연관성에서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사람들과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인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9장 9절부터 13절). 세금 징수원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세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 암 하레츠(Am haretz), 대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 모두 유대와 갈릴리의 세리들을 반역자로 여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Slotis 와 같은 곳에서는 나치와의 협력자들이 반역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때때로 노예 무역의 중개인으로 연루된 아프리카인들은 반역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글쎄요, 그것이 세리들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점령 세력의 협력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랍비들은 세리들과 바리새인들을 죄의 전형이자 경건의 전형으로 정기적으로 대조했습니다.

세리는 때때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로마는 실제로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몇 가지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사업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이집트에서는 세금 징수원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때때로 사람들이 세금 도망자로 도피한 곳을 알아내기 위해 사람들을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때로 그들은 노부인을 때리며 "아들이 세금을 받으려면 아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마을 전체가 인구가 감소했는데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고대 비즈니스 문서에 있습니다. 때로는 마을 전체가 세금 징수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마을을 건너뛰고 다른 곳에서 마을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세금이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당시에는 세금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들은 로마인 부인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집트와 유대와 갈릴리에서 거의 모든 사람을 수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더 높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때로는 뇌물 영수증을 주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은 고대 사업 문서 중에서 2,200드라크마에 대한 영수증이 있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의 수년간의 임금입니다. 그리고 영수증에는 이것이 강탈을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세금이 아마도 사람들 소득의 30~40%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살아갈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세금 징수원으로서 마태는 그 지역에서 저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마르쿠스, 레비와 같은 사람인가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중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대 비즈니스 문서를 읽으면 두 개 또는 때로는 세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식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하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나 레위가 세관원 이었다고 제안했습니다.

세관에서는 각 자치단체마다 3%를 부과합니다.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또 이 지역으로 가는데, 여러 곳을 가면 각 지역의 3%가 합산됩니다. 그 돈은 귀족이 운영하는 지역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오는 세리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고려하면, 이것은 아마도 지역 사람들에게서 직접 세금을 거두는 사람에 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그분을 따르고, 마태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그분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그분의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예수께서 그와 함께 잡수십니다.

그런데 그 문화에서는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그 사람에 대한 인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생활 방식을 승인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마태를 사랑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는 가르치고 있으며 영향력은 그에게서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이것이 바로 암 하 레츠 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평민인 암 하레츠(Am haretz)를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음식에 대해 항상 십일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반 농산물이라고 불리는 음식을 그들에게서 사면 그 음식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세리, 매춘부 등을 포함하여 더 가증스러운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언약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이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언약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전쟁의 서로 다른 측면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서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두 명의 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싸우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세대 전에 한 사람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초대했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는 언약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유다의 경우에 나에게 발꿈치를 들고 나와 함께 먹는 자가 가증한 자라 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면 언약관계가 성립됩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이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교인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글쎄, 예수님의 사명은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있었다고 12절과 13절에서 말합니다. 이 사회는 명예와 수치를 심하게 강조하는 사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불평은 도전이었습니다. 글쎄요, 만약 당신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그건 그 사람에 대한 모욕이고 그 사람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도전자에게 빠르게 대답하면 도전자가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땅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배우라는 말은 그들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무지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의사는 오직 아픈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고대의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건강을 영적 또는 도덕적 온전함에 대한 은유로 사용했고 의사는 철학자, 교육자 및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은유로 사용했습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치료해 오셨습니다.

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인 치료자이시며 사람들의 회복자이십니다. 그리고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름이라는 용어는 초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식사에 초대를 받으셨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913년에 이사야서에서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음, 그 내용은 마태복음 12장과 7절에 다시 인용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은 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동시대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법을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원칙을 추구하고 마음을 추구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태가 우리에게 준 해석학적 열쇠 중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정심의 중요성은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이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가치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점과 그분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에 대한 모범을 보이십니다. 또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들은 다른 것보다 더 적합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옹호하십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답을 추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옹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식사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날 봐.

나는 40일 동안 금식했다. 40일 금식하신 분들 계시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비밀리에 금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금식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혼인 잔치가 끝날 때까지 금식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혼인 잔치는 대개 7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현자들은 지나가는 신부 행렬을 환영하기 위해 학교를 중단했습니다. 이것은 후기 랍비 전통일 수도 있지만, 후기 랍비 중 일부는 안식일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결혼식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결혼식을 계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모든 결혼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혼식은 기쁨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애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금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것이다. 그때가 적절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방식으로도 타당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줄어들지 않은 새 천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글썄, 이미 수축이 끝난 낡은 천에 꿰매고 나면 수축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그것은 천을 찢는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낡은 가죽 부대는 포도주가 발효되고 팽창함에 따라 이미 한계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포도주 부대가 터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연민의 특별한 기적에 대해 읽었습니다.

치유하려는 예수님의 의지에 대해 우리는 9장 18절과 19절에서 읽습니다. 그리고 9장 20절에서 21절에서 우리는 추악한 믿음에 대해 읽습니다. 혈루증을

얹고 있는 이 여자는 레위기 15장에서 그녀 때문에 일종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혈액의 흐름.

그녀는 실제로 사람들을 만지는 군중 속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마가는 군중에 대해 언급하지만 마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녀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5장에서 계속되는 혈류로 인해 그녀와 성관계를 가질 남편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관계 없이는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녀가 결혼했다면 이 시점에서는 결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다는 낙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많은 것을 견디고 있습니다. 마크는 의사들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Matthew와 Luke는 그것을 생략합니다. 물론 루크가 그것을 생략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추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오늘날 우리가 유대교에서 기도용 술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망토의 술이 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것을 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필요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뭔가 강하고 강한 확신을 느낄 때가 믿음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믿음은 모든 것을 파악하고 모든 의심을 억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때로는 믿음이 절망이 되기도 하는데,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맵소사, 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를 계속 신뢰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이 마술이 아님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를 만진 것은 그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같은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권세를 행사하십니다. 아이들은 종종 어려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보다 가난했던 이집트의 고대 비즈니스 문서를 통해 이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는 태어난 모든 어린이의 약 50퍼센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려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적어도 두 명의 전문적인 애도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도자들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혈루증을 앓던 여자와는 아주 다릅니다.

내 말은, 그녀는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다.

이것은 대단한 지위를 지닌 지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회당의 기부자, 부유한 사람,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직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슬픔은 그를 치유가 필요한 이 여인과 같은 지위로 떨어뜨립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조만간 죽음이 우리를 그 수준으로 감소시키지 않는 한 동일한 수준의 절박한 필요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여자가 자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은 죽음을 뜻하는 흔한 완곡한 표현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애도하는 사람들은 애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비밀을 지키실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필요 이상으로 치료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내 말은, 그는 어떤 경우에는 도움을 줄 수 없지만 이것은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글쎄, 당신은 피의 흐름(레위기 15장)과 출산(레위기 12장)으로부터 의식의 부정함에 걸릴 수 있지만, 시체를 만지면 시체의 부정함은 저녁까지 부정할 수 있는 피의 흐름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체의 불순물, 민수기 19장, 당신은 일주일이나 칠일 동안 부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녀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정하게 되셨다는 말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은 그 여자를 만지고 그 부정함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깨어진 가운데 기꺼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합니다.

글쎄요, 이 섹션의 마지막 기적 이야기에서 우리는 9.27-34의 놀라운 장애 치료에 대해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여기 소경들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를 메시아로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또한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그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실명과 말을 할 수 없는 것을 치료합니다. 그의 반대자들은 그를 조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으로서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오늘날 목격자들의 신뢰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친히 주시는 간증을 설명하기 위해 온갖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적에 대한 모든 주장이 사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을 회피하기 위해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께 그런 짓을 했다고 해서 너무 놀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에서 자신의 권위에 관한 또 다른 교훈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음 교훈에서 시작될 곳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10회기 마태복음 8-9장입니다.